

비상계엄에 민주주의 멈췄다

2024년 12월 3일 22시25분...45년 만에 비상계엄 군대 국회진입 통제...계엄사령관 육군 대장 박안수 국회, 재석 190 전원 찬성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교육부 “모든 학사일정은 정상”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밤 10시25분
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러나 비상계엄 선포 후 4일 새벽 1시1분께 국
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헌법 제77조에 따라 윤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중복 세력을 적절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
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이 밤 11시
를 기해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내고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 사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향후 극심한 정치·경제·사회적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에는 이미 군의 장갑차, 헬
기 등과 함께 계엄군이 진입하면서 야당 국회의원
등과 대치하고 있다.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르면
국회의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경우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하지만 윤 대
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가 폐쇄되면서
향후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
표 등을 비롯한 야당 대표와 국회의원들은 이 같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반발해 국회로 모여 대책
을 논의하고 있으며, 미국은 물론 세계 각국도 비상
계엄 상황에 대해 예의주시하며 상황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들은 윤 대통령의 갑작스런 비상계엄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느라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가
실제로 포고령이 내려지자 당혹감과 함께 향후 이
어질 조치에 대해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
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
켜낼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파악할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적절하
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
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
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
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
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력을 적절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다”며 “계엄 선
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
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지만 이러
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
드린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
쳐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라며 “저를 믿어주
십시오”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
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지탄 공황 상태로 만들었
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다”며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 질서
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
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울러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돼야 할 국회와
자유민주주의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이라
며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저녁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계엄군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
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
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
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
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 2. 자유민주주의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
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
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
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
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
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
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
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
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
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
수.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와 함께 계엄사령관 박안
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은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
호)’을 통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 사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고 발표했다. 박 총장은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
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
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
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시부로 대한민국 전

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자유민주주의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
작, 허위선동을 금한다”며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
엄사의 통제를 받는다”고 선포했다. 그러면서 “사
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
다”며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
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

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
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
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
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는 “모든 업무
와 학사일정은 정상운영한다”고 밝혔다.

이후 “군인과 사령관들은 절대 군대를 동원하지
말라”며 “군을 동원하는 순간 그대들은 반역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
포에 대해 “국회는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 조치하
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긴급 기자회견에
서 “국민 여러분께선 국회를 믿고 차분하게 상황을
주시해달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그러
면서 “모든 국회의원께서는 지금 즉시 국회 본회의
장으로 모여주시기를 바란다”며 “특별히 군경은 동요하
지 말고 자리를 지켜달라”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서울의 봄” 영화 장면이 재연되기 원
하다”고 말했다.

조국 대표는 “서울의 봄” 영화 장면이 재연되기 원
하다”고 말했다.

조국 대표는 “서울의 봄” 영화 장면이 재연되기 원
하다”고 말했다.

조국 대표는 “서울의 봄” 영화 장면이 재연되기 원
하다”고 말했다.

조국 대표는 “서울의 봄” 영화 장면이 재연되기 원
하다”고 말했다.

조국 대표는 “서울의 봄” 영화 장면이 재연되기 원
하다”고 말했다.

조국 대표는 “서울의 봄” 영화 장면이 재연되기 원
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 “위헌적 비상계엄선포...국민 여러분 국회로” 한동훈 대표 “비상계엄은 잘못된것...국민과 함께 막겠다” 조국 대표 “국민 용인안해”...우원식 의장 “헌법따라 조치”

비상계엄 선포 정치권 반응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여
야 정치권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한동훈 국민
의힘 대표는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목소리를 높였
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위헌적이고 반국
민적인 계엄선포”라고 호소했다.

국회 본회의장에는 3일 밤부터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 여·야 국회의원들이 집결하고 있으며, 4
일 새벽 1시께 15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 위한 안건 상정을 대기 중이다. 계엄군이 국회
에 진입하면서 국회의원, 보좌진 등과 마찰을 겪고
있어 실제 본회의가 열릴지는 미지수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당 대표 명의 입
장문을 내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



조국 대표



우원식 의장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밝혔다. 한 대
표는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도 (사건
에) 전혀 알지 못했다”며 “국민과 함께 잘못된 계
엄 선포를 반드시 막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

다”고 밝혔다. 또 “국민들은 안심해달라”며 “반드
시 저희가 위법·위헌적 비상계엄을 막아낼 것”이
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비상계엄 선포

후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위헌적이고 반국민적인
계엄선포”라며 “국민 여러분은 국회로 와달라”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비상
계엄을 선포했다”며 “이제 곧 탱크와 장갑차, 총칼
을 든 군인들이 이 나라를 지배하게 된다”고 말했
다.

그는 이어 “이제 ‘검찰 지배국가’에서 ‘군인 지배
국가’로 전환될 것”이라며 “이렇게 방치할 수는 없
다”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
들과 만나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결의하고, 윤 대
통령의 불법 행위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은 이 자체(비상 계엄 선포)만으로도 탄
핵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서울의 봄” 영화 장면이 재연되기 원

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를 철회해야 한
다”며 “전국 모든 국민과 의원들이 불법 행동을 절
대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군인과 사령관들은 절대 군대를 동원하지
말라”며 “군을 동원하는 순간 그대들은 반역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
포에 대해 “국회는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 조치하
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긴급 기자회견에
서 “국민 여러분께선 국회를 믿고 차분하게 상황
을 주시해달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그러
면서 “모든 국회의원께서는 지금 즉시 국회 본회의
장으로 모여주시기를 바란다”며 “특별히 군경은 동요하
지 말고 자리를 지켜달라”고 덧붙였다.

/오광복 기자 kroh@kwangju.co.kr